

보도자료

2019. 4. 15.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자

기획조정심의관 강지웅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최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 -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

- 대법원은 2019. 4. 15. 대법원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개최함
-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음. 나아가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약 70분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있음

1.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9. 4. 15.(월) 16:00 ~ 18:00

- 16:00 ~ 16:30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재판 관련 건의사항 수렴
- 16:50 ~ 18:00 대법원장 주재 간담회

■ 장소

○ 대법원청사

■ 간담회 참석자

○ 대법원

- 김명수 대법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간담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의 별도 면담을 통하여 재판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 청취]

○ 대한변호사협회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이담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등

2. 법원행정처장 면담

■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제로 전달

-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 법원행정처장은 위 의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

-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스톱 국선 변호제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조속히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임
-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향에 관하여 공감하고, 다만 사생활 침해 등 판결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관하여 취지에 공감하는바 다만 이는 입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임

3. 대법원장 주제 간담회 실시 경과 및 구체적 논의 내용

■ 실시 경과

- 인사말씀
 -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씀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인사말씀
- 간담회 안건 설명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 자유토론
 -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경청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력방안 논의
- 마무리말씀

■ 논의 내용

- 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설명

-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사법행정회의 신설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및 비법관화
-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기구화
- 대법원 사무국 설치,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 [2]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경청

-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 의견 표명
-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재판의 독립성 확보가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함
- 대법원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

○ [3]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력방안 논의

- 법률 개정안에 의할 때,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고 외부 위원의 선정에 대한변협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그와 같은 역할을 비롯하여 사법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데에 대한변협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에도 실무진 차원의 정기적 의사소통 이외에도,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얼굴을 맞대고 주요한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함

■ 참석자 코멘트

○ 대법원장

- “오늘 지금까지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함.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서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앞으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임. 오늘의 간담회가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 대한변호사협회장

-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하여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한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함”
-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하여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4. 간담회 개최 의의 및 향후 계획

■ 간담회 개최 의의

-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최초임
- 오늘 간담회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관하여 대법원과 대한변협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오늘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법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법원은 오늘 전달받은 의견을 비롯하여 향후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있음

5. 사진

- ▣ 별도 파일로 첨부. 끝.